

하기노오 고분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하기노오 고분은 오무타 남부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동서 15m, 남북 19m, 높이 4m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길이가 8.2m인 입구는 서쪽을, 묘실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반구형 내부 공간은 깊이 2.9m, 너비 2.6m, 높이 3m이며 응회암 거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고분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하기노오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가 매장되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고분은 몇 세기 전에 개방되었고 남아 있는 부장품은 없지만, 묘실 안에 벽화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벽에는 붉은 산화철 안료로 선박과 방패, 기하학적인 패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 행운과 연관이 있는 벤자이텐, 이 두 불교의 신을 표현한 불상이 고분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입구 바깥의 건물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음보살상에는 17세기 초에 새겨진 글씨가 있습니다.

하기노오 고분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벽화를 보호하기 위해 묘실로 가는 문은 잠겨 있습니다. 벽화를 보고 싶은 방문객은 하기노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푸드숍 히라야마'에서 열쇠를 빌려야 합니다.

구구리즈카 고분

구구리즈카 고분은 직경 약 30m, 높이 7m의 원형 고분으로, 오무타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1959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장품을 기반으로 이 고분이 4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구리즈카 고분은 규슈에 있는 가장 오래된 고분 중 하나입니다.

발굴 조사에서 관 2개가 발견되었는데, 머리는 북쪽을 향한 채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더 오래된 관은 응회암으로, 서쪽을 향해 있는 두 번째 관은 사암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관 내부와 주변에서 대롱옥, 도자기 조각, 금속 화살촉, 철검과 다른 금속 제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개의 관에서는 2세기 초중반에 중국에서 제작된 구리 거울도 발견되었습니다.

구구리즈카 고분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부장품은 미이케 카르타 역사자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로사키 간논즈카 고분

구로사키 간논즈카 고분은 1994년에 발견되었으며 4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구로사키야마 산 고도 58m 위치에 지어진 최대 규모의 전방후원형 고분으로 아리아케해가 내려다보입니다. 묘실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고분을 지을 때 사용된 석재는 구마모토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분에 매장된 이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고분은 높이 10m, 길이 100m, 너비 36m(가장 넓은 부분)입니다. 원형 부분의 직경은 27m 입니다.

고분 맨 위에 있던 경전 통은 헤이안 시대(794~1185)에 구리와 점토로 제작한 것으로 발견 당시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12 세기에는 질병을 예방하고, 재해를 막고, 악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전을 함께 묻었습니다. 통 안에 있던 종이 경전은 썩어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고분 꼭대기에는 고분의 이름이 유래된 관음보살을 모신 작은 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후쿠오카현은 구로사키 간논즈카 고분을 중요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